

# 도시 저층밀집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의 활용분석과 계획방향 제안

## Case Analysis and Planning Guidelines of Children Parks in Low-rise House Residential Area

윤선희\*  
Yoon, Seon-Hui

김진성\*\*  
Kim, Jin-Sung

양우현\*\*\*  
Yang, Woo-Hy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guideline for the construction of children park that can create a quality of dwelling and be easily approached and utilized by residents. In order to present a direction of planning,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children park in low-rise house residential area, and analyzed i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iscriminativ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andpoints of planning of children park. The analytic standpoints were classified into the size and disposition of park, the nature of adjacent street and the utilization of park, and the satisfaction and requirement for the internal space of park. The guideline of planning of children park are as follow: (1) The disposition and size of children park: the children park must be disposed convenient use of all the residents. (2) The environment around including approaching streets and facilities around: residents' recognition and access in their everyday life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neighborhood streets and surrounding facilities. (3) Th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internal space: the internal space must support all the activities of users, and reflect users' requirements in order to induce them to use it continuously.

Keywords : Children Park, Park Location, Park Size, Neighborhood Facility, User Pattern

주요어 : 어린이공원, 공원 위치, 공원 규모, 근린생활시설, 이용 형태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0년 이후 우리나라 주거지 개발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양적 팽창만이 있어왔다. 도로와 학교,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은 생활권 차원에서 확보되고 있지 않고 특히,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은 공공의 외부공간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긍정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만으로 이용자의 편리성보다는 개발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져 자투리땅이나 외진 곳에 조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주거지 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공원과 주거지와 관계적 측면에서 배치와 활용 특성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어린이공원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도시 저층밀집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의 배치와 접근측면, 공원 주변시설과 공원의 공간구성측면으로 어린이공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주요 계획주제별 공원의 규모와 배치, 인

접가로의 성격과 공원의 활용, 공원내부공간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으로 차별성을 지닌 대표적 사례 비교를 통하여 사례의 실제 활용도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도시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 계획 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또는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 저층밀집 주거지<sup>1)</sup>에 위치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공원으로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저층주거지와 형성의 개념 다르고 비교적 외부공간이 풍부한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지는 제외한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 도시 저층밀집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면조사<sup>2)</sup>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례의 활용 특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지역 중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례인 주거지는 도시 생활권의 위계 중 소생활권으로 하여 그 경계는 소생활권의 설정기준인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버스로도)로 구별한다.

2) 서울 생활지번 안내도(1:5,000), 서울시 지도 서비스(<http://gis.seoul.go.kr/>), 토지정보서비스(<http://lmis.seoul.go.kr/sis/index.html>)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정회원(주저자),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석사졸업, 신도시건축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석사수료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조사 후 관찰, 설문, 면담조사를 하였다<sup>3)</sup>. 관찰조사는 조사표에 의해 관찰시기를 정하여 시간대별, 연령별 이용자수를 조사하였고, 이용자들의 활동과 대화를 서술하고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견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도시 주거지의 어린이공원

### 1. 주거지에서 어린이공원의 역할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에 거주자들의 도보권 내 있는 주요 생활공간으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첫째,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과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를 위한 장소로 제공되어 안전한 공간으로 주민들의 외부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다. 둘째,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역에 배치되어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주자들에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지 전체의 오픈스페이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한다. 셋째, 커뮤니티(communitiy)를 형성하는 외부 공공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도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정체성(identity)을 가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 2. 어린이공원 관련 법규

도시공원법 제2조 1항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법규적 조건을 살펴본 결과, 포괄적인 목적과 유치거리, 면적기준만 있을 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표1. 도시공원의 유형 및 종류

| 기능에 따른 도시공원의 유형                          | 도시공원의 부지면적     | 공원시설의 종류 (어린이공원시설 포함)                               |
|--|----------------|---|
| · 어린이 공원<br>· 근린공원<br>· 도시자연공원<br>· 체육공원 | · 공원면적의 60% 이하 | · 조정시설<br>· 휴양시설<br>(노인복지회관 제외)<br>· 유희시설<br>· 운동시설 |

3) 2005년 5월 3일~28일까지의 기간 중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4) 하재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에게는 친밀감, 애착심 등 심리적 요인이 아이덴티티를 깊게 인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재명, 박찬성, “주거지의 환경적 아이덴티티 계획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1호 통권 49호, 1992. 11, pp. 34-35.

표 2. 어린이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

| 공원구분   | 설치목적                   |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 제한 없음 | 250 m | 1,500 m <sup>2</sup> 이상 |

## III. 도시 저층밀집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의 일반적 특성

### 1. 사례 선정과 조사개요

사례는 서울시의 저층밀집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계획지 중에서 구성된 블록의 형태가 정형을 이루며 밀집되고 블록을 구획하는 가로 위계 등 입지적 여건이 명확히 구분되는 곳을 선정한다. 최종 사례는 31개의 주거지 내 59개 어린이공원<sup>5)</sup>이다.

사례 조사의 개요와 방법으로 먼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도면분석한 후 현장조사 사례지를 확정하였다. 사례의 현황조사는 공원의 배치와 접근(주거지 면적과 공원수, 공원 위치, 가로와의 관계)과 공원 주변시설과 공원의 공간구성 측면(주변시설과 접도방식, 공원의 면적과 형태)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공원의 배치와 접근

#### 1) 주거지 면적<sup>6)</sup>과 공원수

사례 주거지의 면적에 따라 공원수를 조사한 결과, 같은 주거지 면적의 주거지에서도 공원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주거지 면적이 10 ha 이상~20 ha 미만에 해당되는 전체 사례 31개소 중 10개소로 공원수는 1~2개까지 나타났다. 주거지와 공원의 면적이 비슷하면 서도 공원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② 20 ha 이상~30 ha 미만의 면적을 지닌 주거지는 13개소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었고, 공원수는 2~3개까지 나타났다. 주거지 내 2개의 공원을 가지는 사례(9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지 면적과 공원 총면적이 유사한 사례지에서 공원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③ 주거지 면적이 30 ha 이상~35 ha 미만인 경우로는 5개 사례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공원수는 2~3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5 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주거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④ 주거지 면적이 40 ha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가진 경우는 3개소의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공원수는 1~4개까지 나타났다.

#### 2) 공원의 위치

어린이공원은 거주자들의 도보권 내에 위치되어 옥외 주거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례 31개 주거

5) 중랑구 8개소, 강동구/송파구 각 5개소, 강서구/ 양천구 각 3개소, 광진구/도봉구 각 2개소, 강북구/은평구/ 서대문구 각 1

6) 주거지의 경계를 소생활권의 설정기준인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버스도로)로 하여(표2.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 서울시 지도 서비스(<http://gis.seoul.go.kr>)를 통해 면적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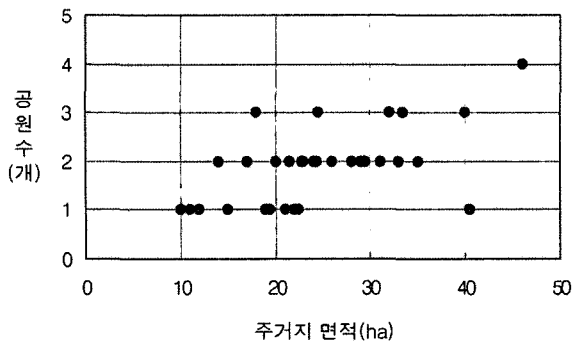


그림 1. 주거지 면적에 따른 공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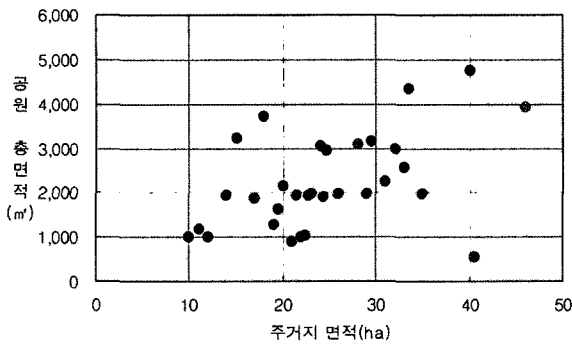


그림 2. 주거지 면적에 따른 공원 총면적

지를 대상으로 그 내의 공원수와 상대적 위치에 따라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주거지 가로와의 관계

주거지 내 가로는 거주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선형의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나는 가로를 ‘근린생활로’로 정의하고 조사하였다.

첫 번째, 복합 근린생활로에 연계된 경우는 근린생활 시설들이 가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주거지 전체를 서비스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나는 가로에 공원이 면해 있는 것으로 15개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그 중 12개의 사례가 공원의 1면 이상이 8m 이상 주거지 간선도로에 면하고 양측의 간선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하였다. 이 가로는 주 보행로로 주민들의 이용과 차량의 흐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독립 근린생활로에 연계된 경우는 가로를 따라 다수 근린생활 시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단지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나는 가로에 공원이 면해 있는 것이다. 사례 16개가 이에 해당한다. 대중교통시설과 가까운 주거지 진입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집중 분포되어 있었고 주거지 안쪽으로 갈수록 주택들이 밀집해 있었다. 세 번째, 근린생활로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는 공원이 면한 가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들과 대중교통시설이 위치하지 않고 주택들이 있는 것으로 이에 20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공원에 면한 가로는 주거지를 통과하거나 간선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주거지 내부가로로 사례에서

표 3.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 위치별 유형

| 유형  | 단일 중앙형                                 | 단일 편중형  | 다수 연결띠형                                    | 다수 분산형                                     |
|-----|--|---|--|--|
| 개념도 |  |   |  |  |
| 배치도 |  |   |  |  |
| 형태  | 1개의 공원이 주거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형태               | 1개의 공원을 가지면서도 공원이 주거지 외곽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                   | 2개 이상의 공원이 주거지 내 배치되어 동일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 2개 이상의 공원이 점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형태              |
| 개수  | 4개(12.9%)                              | 6개(19.3%)   | 4개(12.9%)                                  | 17개(54.8%)                                 |
| 특징  | 주호의 위치에 따라 공원의 접근 보행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 주호의 위치에 따라 공원의 접근 보행거리가 매우 크고, 간선도로에서의 진입하여 짧은 거리에 공원이 위치 | 공원들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어 가로는 주거지에서 특성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 | 공원은 주거지 내에서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분포 형상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자들의 주호 위치에 따라 공원의 접근성과 인지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4) 통학로와의 관계

주거지 외부공간의 사용자가 어린이기임을 고려하여 학교(통학로)와 관계는 중요하다. 주거지 내 학교가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통학권을 형성하는 총 17개의 사례의 29개 공원을 조사하여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3. 공원 주변시설과 공원의 공간구성

1) 주변시설과 접근방식

(1) 주변시설

공원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유무와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상업시설에 의해 둘러싸인 것으로 공원 주변으로 다수의 근린생활시설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경우

표 4. 주거지 가로와의 관계

| 근린생활로에 연계된 경우 |         | 근린생활로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 |
|---------------|---------|-------------------|
| 복합근린생활로       | 독립근린생활로 |                   |
|               |         |                   |
|               |         |                   |

7) 민병호, 『라푸타를 찾아서-이동을 위한 주거단지계획』, 세진사, 2001, p. 15.

표 5. 통학로와의 관계

| 통학로에 연계하는 경우   |  |  | 통학로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                                   |
|--|--|--|---|
| 연접 배치된 경우  | 가로로 사이에 둔 경우   | 동일가로로 연결된 경우   |   |
|  |  |  |   |
|  |  |  |   |
| 어린이공원 학교   |  |  |   |
| 공원과 학교가 담장을 사이에 두고 계획되어 있는 것   | 공원과 학교 사이에 가로 있는 것   | 원과 학교의 물리적인 위치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공원이 통학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  | 주거지 내 학교가 위치하고 있지만 서로 관련이 없이 계획되어 서로 멀리 떨어져 위치한 것 |
| 1개 사례  | 2개 사례  | 7개의 사례   | 19개 사례  |
| 한아름공원의 경우 학교와 공원은 서로 통하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공원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가능 | 꽃동산공원의 경우, 공원과 초등학교는 가로를 사이에 두고 출입구가 마주하고 학교 출입구에 연결된 담의 일부분이 공원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두 시설이 연결되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공원을 이용 | 대부분의 사례에서 학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250m 이하로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가로에는 슈퍼마켓, 문구점, 학원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들은 통학로 연결된 공원으로 접근을 가능 | 공원-학교의 연계 이용에 영향을 끼침                              |

로 36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6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공원이 14개의 사례로 근린생활로에 연계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는 일상생활지원시설인 슈퍼마켓, 학원, 부동산, 미용실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공시설인 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등이 공원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공원 주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교회 등이 특정시설이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우로 10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정 이용자가 있어 공원의 주 이용자와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원 주변에 주거지와 관련성이 적은 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 공원 주변에 호텔, 주차 빌딩 등이 위치한 것으로 4개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 경우에 공원은 주거지 외곽에 치우쳐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다른 주거지에 위치한 공원의 주변 환경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순수 주거건물 의해 둘러싸인 경우는 3~4층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원 주변에 밀집하는 것으로 14개의 사례로 공원 주변의 거주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2) 접도방식

공원이 도로면에 접하는 것은 가로변의 경관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원내의 기능적·심리적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공원에 면하는 도로수와 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① 1면 접도형은 공원의 1면이 도로에 면하는 방식으로 9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서는 공원이 6m 블록진입로에 면하는 경우가 7개 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대부분의 공원이 정방형이었다. ② 2면 직각 접도형은 공원의 2면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도로에 면하는 방식으로 15개 사례에서 나타났다. 대부분 장방형이며, 전체 사례 중 11개의 공원이 남쪽의 도로에 면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공원주변으로 상업시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2면 평행 접도형은 공원의 평행한 2면이 도로에 면하는 방식으로 7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공원은 6m 이상의 블록진입로에 면하고 정방형 이었다. 이 유형은 블록 내부에 공원이 조성되어 블록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이 공원을 통과하여 이용하였다. ④ 3면 접도형은 공원의 3면이 도로에 방식으로 14개 사례에서 나타났다. 7개 사례가 8m 이상의 주거지 간선도로에 면했다. 대부분의 공원이 장방형으로 공원의 3면 중 가장 긴 한 면에 접하고 있었다. ⑤ 4면 접도형은 공원의 4면이 모두 도로에 면하는 방식으로 6개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3~10m 도로 폭에 공원이 면해 있다.

표 6. 공원 주변시설과 접도방식

|       | 유형                | 사례수 | 특성                             |
|-------|-------------------|-----|--------------------------------|
| 주변 시설 |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집중 분포  | 36개 | 일상생활지원시설(슈퍼마켓, 학원, 부동산) 많이 나타남 |
|       | 특정시설이 인접 위치       | 10개 | 특정시설의 고정 이용자에 의해 공원 활용 가능성     |
|       | 주거지와 관련성 적은 시설 위치 | 4개  | 주거지 내 공원과 공원의 역할, 이용자 차이       |
|       | 순수 주거건물 밀집        | 14개 | 거주자들의 공원 접근 용이                 |
| 접도 방식 | 1면 접도형            | 7개  |                                |
|       | 2면 직각 접도형         | 15개 |                                |
|       | 2면 평행 접도형         | 7개  |                                |
|       | 3면 접도형            | 14개 |                                |
|       | 4면 접도형            | 6개  |                                |

2) 공원의 면적과 형태

(1) 공원의 면적

전체 사례의 평균 공원 면적은 1,173 m<sup>2</sup>였다. 이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1,500 m<sup>2</sup>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면적에 따라 사례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500 m<sup>2</sup>~600 m<sup>2</sup>의 면적을 가진 공원으로 3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사례 공원은 상대적으로 이 보다 큰 규모의 공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조합놀이대, 파고라 등의 놀이시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공원면적에 대한 시설물의 면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900 m<sup>2</sup>~1,500 m<sup>2</sup>의 면적을 가진 공원은 전체 어린이공원 사례 59개 중 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0 m<sup>2</sup> 내외의 면적을 가진 공원이 도시 저층주거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500 m<sup>2</sup> 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원으로 12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 중 10개의 사례가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송파구 주거지역에서 나타났다.

(2) 공원의 형태

공원의 형태<sup>8)</sup>를 크게 정방형과 장방형 나누어 조사하였다. 정방형의 공원은 27개의 사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점도방식별로는 1면 점도형인 9개 사례 중 6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공원 면적이 500 m<sup>2</sup>~600 m<sup>2</sup>에 속하는 3개가 사례 모두가 여기에 속했다. 그리고 장방형의 공원은 24개의 사례로 이를 수직(8개)과 수평장방형(16개)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표 7. 공원의 면적과 형태

|    | 구분        | 사례수 | 특성                            |
|----|-----------|-----|-------------------------------|
| 면적 | 500~600   | 3개  | 공원시설 설치로 실질적인 놀이공간 없음         |
|    | 900~1,500 | 45개 | 도시 저층주거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면적       |
|    | 1,500이상   | 12개 | 8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송파구)에서 많이 나타남 |
| 형태 | 정방형       | 27개 |                               |
|    | 장방형       | 24개 |                               |

IV. 어린이공원의 활용 특성과 이용자 요구사항

1. 분석의 개요와 방법

본 장에서는 어린이공원 계획과 관련하여 각 분석항목별로 사회적, 경제적 현황이 정성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현장관찰, 설문,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의 활용현황과 공원 이용자들 행위에 대해 어린이공원의 물리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8) 공원의 형태는 장단변비 1~1.5 미만을 정방형으로 0~1 미만, 1.5 이상인 경우를 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3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공원의 규모와 배치에서는 동일 면적의 주거지에서 각각의 공원의 규모와 배치에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통하여 두 사례의 공원 이용도를 비교분석한다.

두 번째, 공원의 인접가로와 성격과 공원의 활용에서는 공원에 면하는 인접가로와 특성이 공원 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공원과 주변시설의 연계 이용특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공원 내부공간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에서는 전체적인 공원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만족·불만족 이유, 요구사항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다.

표 8. 분석의 틀

| 범위             | 분석 관점           | 분석 내용               |
|----------------|-----------------|---------------------|
| 도시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 | 공원의 규모와 배치      | 이용특성(총이용자수, 연령별 이용) |
|                |                 | 실제 이용 면적과 활용 특성     |
|                |                 | 이용행태의 특성            |
|                | 인접가로와 성격과 공원 활용 | 이용특성(총이용자수, 연령별 이용) |
|                |                 | 이용자의 접근경로 특성        |
|                |                 | 주변시설과의 연계이용 특성      |
| 공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 만족도와 요구사항       |                     |
|                | 공간구조와 활용 특성     |                     |

2. 주거지 내 공원의 규모와 배치

본 항목에서는 주거지 면적과 공원 총면적이 유사한 사례를 통해 공원의 규모<sup>9)</sup>와 배치방법의 차이가 공원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주거지와 공원 현황

(1) 중랑구 면목3동 (까치공원)

중랑구의 속해 있는 면목3동은 중랑구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 면적은 55 ha이며, 인구는 19,596명, 총 7,17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사례 주거지의 남서쪽으로 7호선 사가정역이 있고, 주거지내에는 격자형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시설로는 주거지 북측으로 인접하여 면동초등학교와 서측과 동측으로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위

표 9. 주거지 내 공원의 규모와 배치

| 주거지 내 대규모 공원으로 집중 배치된 경우 | 주거지 내 소규모 공원으로 분산 배치된 경우    |
|--------------------------|-----------------------------|
|                          |                             |
| 중랑구 면목3동 주거지 (까치공원)      | 강서구 화곡1동 주거지 (필마, 버들, 다운공원) |

9) 대규모와 소규모는 상대적 개념으로 주거지 내 공원의 배치방법에 따라 공원의 활용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3. 중랑구 면목3동 (까치공원)

치하고 있다.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인 까치공원은 전체 주거지의 북동쪽 코너부에 위치한다. 공원 면적은 3,231 m<sup>2</sup> 이고 형태는 수평장방형이다. 공원의 주변시설로는 슈퍼마켓, 병원, 부동산 동사무소 등이 있다.

(2) 강서구 화곡1동(필마, 버들, 다운공원)

강서구의 속해 있는 화곡1동은 강서구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화곡1동의 면적은 50ha이며, 인구는 22,290명, 총 8,07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 주거지의 동쪽으로 2호선인 까치산역이 있고 남쪽으로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사례 주거지 내에는 3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다. 먼저, 필마공원은 주거지에서 서쪽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공원의 면적은 1615.5 m<sup>2</sup>이며 형태는 수평장방형이다. 공원과 인접하여 교회시설이 있다. 다음으로, 버들공원은 주거지 내에서 물리적 위치는 중앙이고 공원의 면적은 1087.2 m<sup>2</sup>이며 형태는 정방형이다. 이 공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로 다운공원은 주거지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지하철역에 가장 가깝다. 공원의 면적은 1,190.6 m<sup>2</sup>이며 형태는 정방형이다. 공원 주변으로는 교회와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4. 강서구 화곡1동(필마, 버들, 다운공원)

2) 이용 특성<sup>10)</sup>

(1) 총 이용자수

사례 공원의 총 이용자수를 조사한 결과, 공원의 이용은 주중과 주말 모두 소규모로 분산 배치된 경우(화곡1동)가 대규모로 집중 배치된 경우(면목3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주말의 경우에 공원 이용도가 높았다. 그리고 두 공원 모두 오후 2전후와 5시 전후로 총 이용자수의 큰 변화를 보이고, 오후에는 5~7시까지가 공원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 이용 중 주말을 보면, 소규모로 분산 배치된 경우에는 낮 시간의 이용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원에 인접한 주호의 거주자들의 이용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저녁시간의 이용은 대규모로 집중 배치된 경우 높게 나타났는데 하나의 공원에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공원이 활기차고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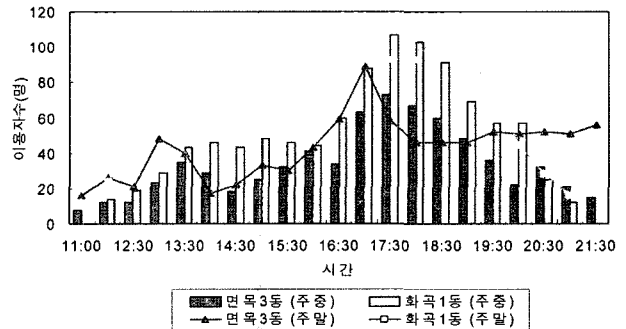


그림 5. 사례 주거지 내 공원의 시간별 이용자수

(2) 연령별 분포

두 사례 공원 이용자의 연령층을 살펴본 결과, 공원이 주 이용자는 8~13세의 초등학생으로 나타났다. 주로 초등학생의 이용은 4시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고, 대규모 공원으로 집중 배치된 경우에는 2시 전후에 초등학생 이용이 급격히 증감하고 있었다. 학교와 학원시설의 시간에 따라 공원이 이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규모로 분산 배치된 경우에는 초등학생 이외에 이용자층이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과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아의 이용이 높았다. 이는 주거지 내 공원이 분산되어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쉽고, 안전성 측면에서 보행거리가 짧은 노약자와 유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저녁 이용이 높은 대규모 공원으로 집중 배치된 경우(면목3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령층은 어린이층이 아니라 어른과 중·고등학생의 증가로 나타났다.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서는 가족단위로 이용과 체육활동, 산

10) 관찰 조사는 오전 11시에~오후 8시까지 실시하였고 이용자의 연령은 유아(3~7세), 초등학생(8~13세), 중·고등학생(14~19세), 어른, 노인층으로 구분하였다.

표 10. 공원의 시간별 연령 이용분포(주중/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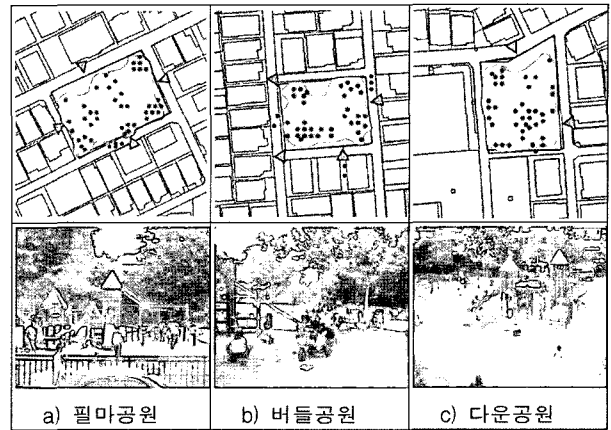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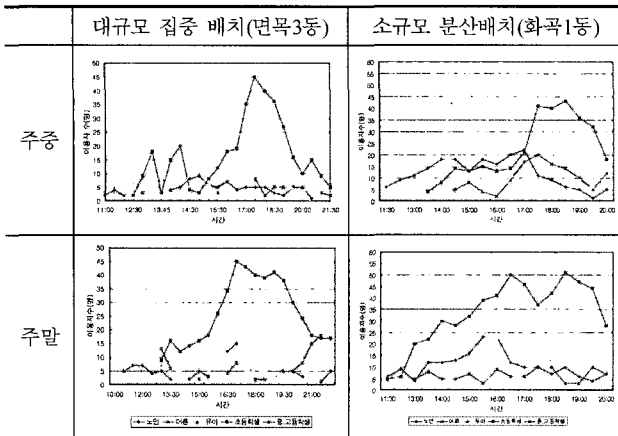


그림 7. 소규모로 분산 배치된 공원의 이용자 분포도

책 등이 많이 일어나 안전한 공원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소규모로 분산 배치된 경우(화곡1동)에는 노인층은 낮 시간에, 유아와 초등학생은 저녁시간에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이용은 어린이의 수가 증가와 이용자들의 장시간 이용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이용 면적과 활용 특성

두 사례지에 현재 조성된 공원이 충분히 실제 이용자들이 의해 활용 측면을 알아보려고 한다. 주거지내 조성된 실제 이용되는 총 공원면적에 대한 1인당 활동면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sup>11)</sup>.

실제 공원의 이용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랑구 면목3동 주거지에 조성된 공원 면적은 3,231 m<sup>2</sup>이다. 관찰조사 결과, 어린이들의 이용이 높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실제 이용하는 면적은 전체 공원의 절반수준인 약 1,680 m<sup>2</sup>로 정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sup>12)</sup>를 통해 공원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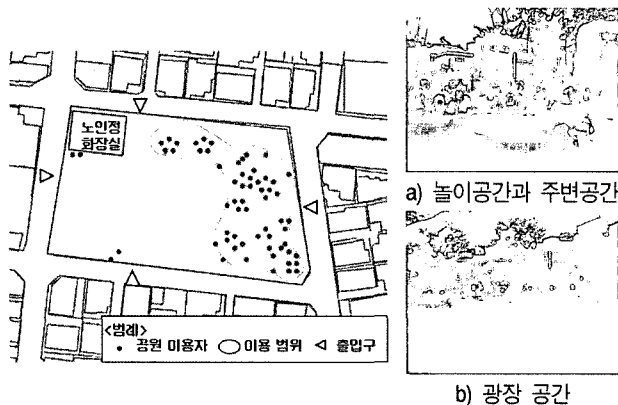


그림 6. 대규모로 집중 배치된 공원의 이용자 분포도

11) 공원면적에 대한 1인당 활동면적으로 활용도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선정된 사례의 총 공원면적이 3,000 m<sup>2</sup> 이상으로 1인당 활동면적도 상대적으로 크며, 또한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적정면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넓게 조성된 광장공간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강서구 화곡1동 주거지 내에 세 개의 공원의 총 면적은 3893.3 m<sup>2</sup>이다. 각각의 공원 면적은 면목3동 대규모 공원의 1/3 정도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총 공원면적은 3761.0 m<sup>2</sup>으로 시간대 별로 이용공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원의 최대이용시를 전후하여 세 공원 모두 전체공간이 고르게 이용되었다.

주중의 공원의 최대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공원의 1인당 활동면적을 산출하였다. 기회 1인당 활동면적은 소규모로 분산 배치된 경우(화곡1동)가 공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로 공원이 집중 배치된 경우(면목3동)보다 더 작게 나타났지만 이용 1인당 활동면적을 살펴본 결과, 소규모 분산 배치된 경우의 1인당 활동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거지 내 공원의 총 면적이 비슷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원의 전체공간을 모두 활용하는 소규모 분산 배치된 경우가 1인당 활동 면적이 넓어 공원의 이용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대규모 공원으로 집중 배치된 경우는 조성되어 있는 공원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결과이다.

4) 이용 행태의 특성

공원의 이용 행태를 관찰한 결과, 주거지 내 소규모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특징적인 점이 나타났다.

(1) 공원의 애착, 소유의식

화곡1동의 세 개의 어린이공원 중 필마공원에서 나타난 행태적 특징이다. 이 공원은 다세대주택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주택들의 출입구는 공원을 향해 있다. 관찰과 인터뷰 통하여 거주자들이 자신의 공원으로 인식하고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원의 생활 공간화

12) “저기(광장)서 저번에는 전시회 같은 거 했었는데 그거 참 좋더라고요. 주말이더라도 어린이들과 관련된 행사(물물교환, 미술전시회)등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평소저기는 사람들이 별로 이용 안 해요.” - 30대 주부 -

공원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이용자가 있었는데, 특히 노인층은 장시간 공원을 이용하면서 가사일을 하거나,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이렇게 공원은 자연스럽게 거주자들의 일상 생활활동이 일어나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한다.

(3) 공원 인접가로의 놀이공간화

공원의 많은 어린이들이 인접가로공간까지 나와 서로 모여서 소꿉놀이, 물총놀이, 인라인 등의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경우, 타 공원보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오는 많은 유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 공원의 애착 (화단관리)      b) 공원의 생활공간화      c) 인접가로의 놀이공간화

그림 8. 공원의 이용 행태 특성

3. 인접가로의 성격과 공원 활용

주거지 내 가로에 면해 있는 공원시설은 주거지 내 공공 오픈스페이스로 주민에게 개방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공원으로의 접근환경은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의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을 위치시킬 때 그 주변 환경으로 공원의 인접가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접근환경이 공원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공원의 인접가로의 성격에 있어 명확한 차별성 지니는 공원이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가로에 인접한 경우와 공원이 주택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여 주호를 향하는 동선만이 일어나는 가로에 인접한 경우 그리고 공원이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가로에 직접 면해 있지는 않지만 근거리에 위치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세 사례를 선정하였다.

1) 공원과 가로 현황

(1) 공원 현황

사례의 공원과 가로현황을 보겠다.

표 11. 사례 공원별 인접가로의 특성

| 근린생활로에 면한 경우(남촌공원) | 근린생활로에 면하지 않은 경우(겸재공원) | 근린생활로에 근접한 경우(은행공원) |
|--------------------|------------------------|---------------------|
|                    |                        |                     |
|                    |                        |                     |

첫 번째로, 남촌공원과 겸재공원은 중랑구에 속해 있는 면목6동 위치하고 있다. 면목6동의 면적은 37ha이며, 인구는 16,656명, 총 5,83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의 북서쪽으로 지하철 면목역이, 동쪽과 서쪽에는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있고 인접하여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다. 그 중 남촌공원은 전체 주거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 면적은 1010.6m<sup>2</sup>이고 형태는 수직 장방형이다. 공원의 3면이 도로에 면해 있고 주거지 중앙부분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도로에 면한다. 겸재공원은 전체 주거지의 북동쪽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 면적은 975.9m<sup>2</sup>이고 형태는 정방형이다. 공원의 1면만이 도로에 면하고, 가로를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두 번째로, 은행공원은 강서구에 속해 있는 화곡7동은 위치하고 있다. 화곡7동 면적은 62ha이며, 인구는 29,926명, 총 10,43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의 중앙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동쪽으로 중학교가 있다. 주거지 내에는 두 개의 어린이공원(은행공원, 까치공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사례로 선정된 은행공원은 주거지 중앙에 위치하며 공원 면적은 1.137m<sup>2</sup>이다. 형태는 정방형이고 공원의 3면이 4m 도로에 면해 있다. 공원은 화곡 중앙시장길에 직접 면해 있지만 않지만 근접하여 연결되어 있다.

(2) 가로 현황

사례 공원의 인접가로의 시설의 배치와 업종 분포를 알아본 결과, 남촌공원과 은행공원의 근린생활로에는 다수의 시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시설의 종류를 보면 1·2차 지원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남촌공원은 이를 제외한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겸재공원의 인접가로는 소수의 근린생활시설이 점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2) 이용 특성

(1) 총 이용자수

사례 공원의 총 이용자수 조사한 결과, 주중과 주말 모두 근린생활로에 면해 있는 남촌공원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반해 근린생활로에 면하지 않은 겸재공원은 가장 낮은 이용도를 보이며 남촌공원의 이용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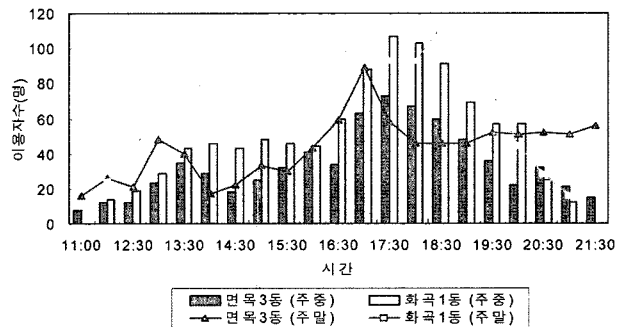


그림 9. 공원과 가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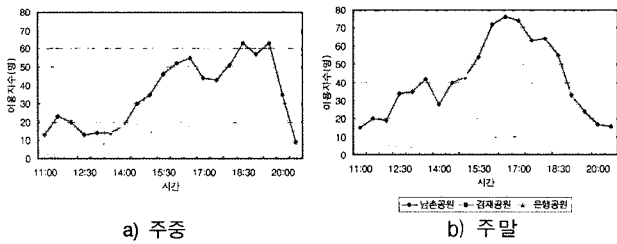


그림 10. 각 공원별 총 이용자수

저녁시간에는 은행공원이 남촌공원보다 이용자수 많았는데 이는 근린생활로가 근접하고 있고 공원 주변으로는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행자나 공원 이용자들이 가로 이용이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촌공원과 은행공원은 주 보행로와 연계되어 많은 보행자들이 공원 이용으로 이어져 이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사례의 공원은 공통적으로 모든 시간대에서 주말이 주중보다 공원의 이용도가 높았고 주말의 경우에는 오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분포

세 공원의 연령별 이용특성은 <표 11>과 같이 초등학교생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인층의 이용이 많았다. 공원별로 보면, 근린생활로에 면해 있는 남촌공원이 가장 많은 총 이용자수를 보이며 다양한 이용자층에게 고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근린생활로에 근접하여 연결된 은행공원은 초등학교생과 유아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각 공원의 연령별 이용특성을 보면 ① 근린생활로 면해 있는 남촌공원의 주말에는 어린이 이용이 일찍부터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생들의 수 증가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로 분석된다. ② 근린생활로에 면하지 않는 검재공원의 경우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령별 이용 특성이 없으며, 주중과 주말도 큰 차이 없이 모든 연령별

이용자가 10명 이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례 모두 중·고등학생층의 이용은 오후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연령층도 많은 남촌공원과 달리 총 이용자수가 적은 검재공원의 경우에 이들의 이용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이는 공원의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은 서로 타 이용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어 안전하고 긍정적인 공원의 활용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③ 근린생활로에 근접한 은행공원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층에서 고른 이용을 보이고 특히, 주중의 오전 시간에 유아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면담을 통해 공원에 인접한 어린이집 유아들 입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아들에게 익숙해진 공원은 그 외의 시간 이후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시간대에 노인층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공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 수나 이용자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이용자였다.

3) 이용자의 접근경로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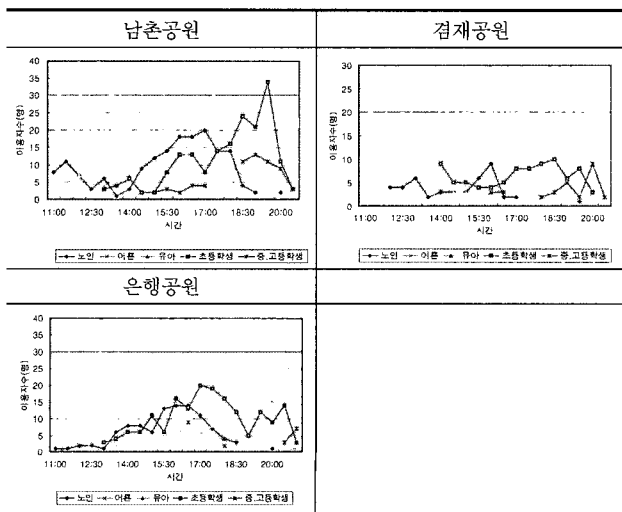
본 항목에서는 앞에서 사례 공원의 이용도를 바탕으로 실제 공원이용자의 주호에서 공원까지 오는 접근경로로 공원의 실제 서비스 범위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방법으로는 공원 이용자들이 거주하는 주호에서 공원까지 오는 접근경로를 직접 지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세 공원 경우, 이용자들의 접근경로를 조사한 결과<sup>14)</sup> 주 보행로에 면해 있는 공원은 많은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성과 접근성이 높아 쉽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근린생활로에 면해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남촌공원과 은행공원의 경우 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전체 주거지의 모든 거주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근린생활로에 면해 있지 않은 검재공원 경우는

표 13. 공원별 접근경로 현황

| 근린생활로에 면한 경우<br>(남촌공원) | 근린생활로에 면하지 않은 경우<br>(검재공원) |
|------------------------|----------------------------|
|                        |                            |

표 12. 사례 공원의 연령별 이용분포



13) 2005년 5월 13일 검재공원 관찰: 낮 시간에 초등학교생이 그네를 타기 위해 공원에 왔으나 그네가 맨 위까지 감겨 있어 타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인터뷰 결과 저녁때 중·고등학생들이 그네를 올려놓고 간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저녁시간에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키에 맞게 그네를 올려서 타다가 그네를 맨 위로 감는 등의 행위가 관찰되었다.

14) 남촌공원 46명, 검재공원 21명(공원 이용자 적음), 은행공원 49명에게 실시하였다.

공원에 인접한 주호의 거주자들만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주거지 내 위치한 점재공원과 남촌공원의 접근경로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그리고 또한 두 공원간의 실제 이동거리가 같거나 오히려 점재공원이 가까움에 불구하고 멀리 있는 근린생활로에 면한 남촌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는 거주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변시설의 영향으로 공원까지의 접근거리를 실제 물리적 이동거리보다 짧게 느끼고 그것에 인접한 공원을 자연스럽게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공원에 오는 이유<sup>15)</sup>중 또래 친구와 이웃으로 이는 공원 이용자들은 서로에게 공원을 찾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공원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사회적 환경이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개선(놀이 기구, 바닥포장 등)된 남촌공원의 질적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변시설과의 연계이용 특성

본 항목에서는 공원과 주변시설의 연계 이용 특성과 공원의 인접가로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용자나 보행자들의 행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주변시설과의 연계 이용도를 알아보기 전에 공원주변의 시설을 살펴보면, 남촌공원은 주거지 내 주 보행로인 근린생활로에 면해 있고 그 주변시설로는 슈퍼, 문구, 목욕탕, 부동산 등이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은행공원은 공원에 직접 면한 가로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거리 근린생활로로 시장길이 형성되고 있다. 주변시설로 슈퍼, 분식점, 동사무소 등이 있었다.

공원과 주변시설과의 연계 이용자수를 조사한 결과, 대

체로 두 시설간의 연계 이용도는 높게 나타났다. 근린생활로에 면해 있는 남촌공원은 초등학교의 이용이 많아지는 오후로 갈수록 공원의 주변시설과의 연계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시설의 영향으로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용 가능하였고, 주변시설의 주인과 이용자에게 의해 공원은 항상 감시·관리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은행공원은 시장길인 근린생활로와 근접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이용자들이 연계적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주변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 학교와 그 외 교육시설과 연계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와 그 외 교육시설들은 공원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시설로 공원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촌공원과 은행공원은 공원과 인접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었다. 두 공원의 이용자인 초등학생들과의 관찰·인터뷰를 통해 학교가 끝난 후에 집이나 학원을 가기 전·후에 공원을 이용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원의 주 이용자와 관련하여 공원 주변으로 커뮤니티 가용자원<sup>16)</sup>(학교, 학원, 유치원, 슈퍼 등)이 군집 배치되어 있어 서로간의 복합적인 이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을 계획시, 공원의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만큼 어린이의 일과생활패턴과 이용시설이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용 행태의 특성

인접가로와 관련하여 남촌공원에서는 공원에 면한 가로의 보행자와 공원 이용자의 교류 행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은행공원의 경우는 공원 인접가로에서 인라인, 자전거, 킥보드 타기 등의 놀이 활동이 많이 일어났다. 이는 근린생활로에 직접 면하지 않아 가로의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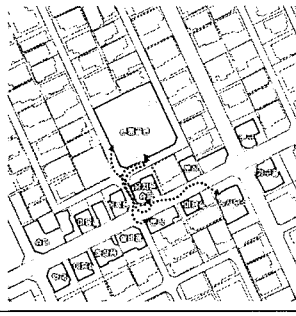


4. 공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본 항목에서는 어린이공원 내부계획 관점으로 범위를 좁혀 공원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그 이유 그리고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과 면담조사<sup>17)</sup>를 병행하였다.

1) 공원의 내부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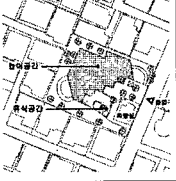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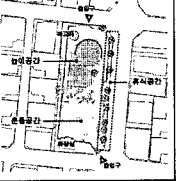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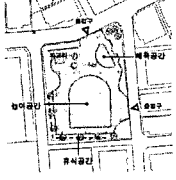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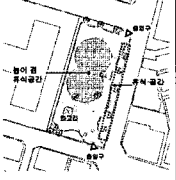

16) 민병호 『라푸타를 찾아서-아동을 위한 주거단지계획』에서 커뮤니티 가용자원을 파악하여 네트워크화 시킬 것을 주장한다.  
 17) 전체 133명에게 설문조사(어린이/어른)를 실시하였으며 각 공원별로 20명 내외였다. 은행공원 22명(17명/5명), 버들공원 21명(16명/5명), 다운공원 21명(15명/ 6명), 남촌공원23명(16명/ 6명), 햇님공원 26명(20명/6명), 희망공원 20명(16명/4명) 조사. 조사시 청소년 1~2명으로 포함되었으나 연령별 이용도에 볼 수 있듯이 공원의 주 이용자가 어린이과 이들을 동반한 부모이므로 주 분석대상으로 이들로 정하여서 연령별 심층적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연령별 행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 공원 주변시설 현황과 연계이용

| 남촌공원  | 은행공원  |
|---|---|
|  |  |
|  |  |

15) “아줌마들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공원에 오래 있고, 다음에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 주부-

표 15. 각 공원 현황

|       | 햇님공원   | 남촌공원   | 버들공원   |
|-------|--|--|--|
| 위치    | 광진구 화양동  | 중랑구 면목6동   | 강서구 화곡1동   |
| 면적    | 1002.3   | 1010.6   | 1087.2   |
| 형태    | 정방형  | 장방형  | 정방형  |
| 공간 구성 | 놀이과 휴식공간 구분, 공원 양쪽으로 조경공간 조성   | 공원 중앙에 가벽에 의해 놀이, 운동공간 구분, 가장자리에 휴식공간 조성   | 공원 내 레벨차이를 두어 놀이와 운동공간 구분  |
|       |   |   |   |
|       | 다운공원   | 희망공원   | 은행공원   |
| 위치    | 강서구 화곡1동   | 강동구 길1동  | 강서구 화곡7동   |
| 면적    | 1190.6   | 992.4  | 1123.6   |
| 형태    | 정방형  | 장방형  | 정방형  |
| 공간 구성 | 공원 중앙에 놀이 공간, 그 주변으로 휴식공간, 조경공간 구분하여 조성  | 놀이, 운동, 휴식공간이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고 조성   | 놀이공간과 운동 겸 휴식공간이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고 조성  |
|       |  |  |  |

선정된 공원의 내부공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만족도와 요구사항

(1) 만족도

6개의 사례 공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버들공원>다운공원>남촌공원>은행공원>햇님공원>희망공원순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거지 내 외부 놀이, 녹지, 휴식공간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 불만과 요구사항

공원별로 조사한 결과, 불만사항은 놀이시설>공원 이용자(불량 청소년, 노숙자)>공원관리>운동공간 부족>휴식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구사항으로는 놀이시설의 개선이 가장 높았으며, 운동공간 확보, 수경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등이 있었다.

첫 번째, 놀이시설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한 놀이시설과 선호놀이시설의 수부족 그리고 놀이시설의 획일화와 안전성, 내구성 등을 불만사항으로 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원 내 놀이시설이 특정 이용자층에 게만 적합하며 그 외 이용자의 연령층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놀이시설의 높낮이, 폭 등의 개선되어 다양한 이용자층의 이용이 가능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구체적으로 놀이시설의 종류와 모양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놀이행위가 가능한 놀이시설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직접 조작이

표 16. 만족도의 우선순위와 이유

| 놀이공간 > 녹지공간 > 사회적 만남 |   |
|----------------------|---|
| 만족이유                 |   |
| 놀이 공간                | · 각 공원별 만족 이유를 보더라도 모든 공원에서 공통적으로 놀이시설 때문에 온다는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br>· 설문조사 시 많은 어린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시설(그네, 미끄럼틀 등)이 있었으며, 다른 공원에서는 볼 수 없는 놀이시설 설치를 그 이유로 들었음<br>· 사례 중 공원 내 바닥패턴으로 놀이를 지원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녹지 공간                | · 주거지에서 많은 수목 식재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점<br>· 조성된 녹지공간은 아이들에게는 학교생활과도 연결 <sup>18)</sup> 되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br>· 그러나 녹지공간에 다양한 수종의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  |
| 사회적 만남               | · ‘친구들이 많아서’, ‘이웃들과의 만남’ 라고 응답하였다.<br>· 공원 공간을 통해 사회적 교류로 가능하고 친밀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br>· 공원이 동네의 중심된 공간으로써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br>· 아이들의 경우 카드, 공놀이처럼 또래 집단놀이가 많이 나타남  |



a) 선호놀이시설 b) 녹지공간 이용 c) 이웃과의 만남

그림 11. 공원의 만족 이유

가능한 가변적인 놀이시설의 설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이 집중되는 놀이시설이 확충 될 필요가 있고 놀이시설의 색깔, 재료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놀이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재료의 재질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원 이용자에 대한 불만 사항이다. 특히, 공원의 저녁시간의 이용이 증가하는 불량 청소년과 노숙자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주자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동안 불쾌요소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공원 이용도에 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공원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인 공원의 쾌적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다. 현재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2~3일 한번씩 청소하는 등 매일 이용되는 공원공간을 깨끗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공원 내 수경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경시설 중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음수대 설치를 요구<sup>19)</sup>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으로 공원 내

18) “나무도 많아서 학교 그림숙제를 할 수 있어요.” -8세 여자-  
19) “공원이 모래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모래놀이하다가도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행공원-

시계 설치가 있었다. 현재 공원 내 시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인터뷰 통해서 어린이들이 학원과 집으로 가는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들을 위한 공원 내 주말이나 계절별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용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었다.

3) 공간구성과 활용 특성

(1) 만족도

공원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다운공원>버들공원>남촌공원>은행공원>햇님공원>희망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공원 내부공간들이 서로 구분되어 조성된 사례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항목에는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다운, 남촌, 희망공원의 공간구성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공원 내부공간의 구성방법

| 공간 구분이 이루어진 경우 |              | 공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                |              |                   |
| 다운공원           | 남촌, 은행, 버들공원 | 햇님, 희망공원          |

먼저, 다운공원은 중앙에 놀이공간에서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놀이와 모래놀이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놀이공간 주위로 형성된 공간은 블록포장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자전거나 인라인 타기 등 선형의 놀이행위가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남촌공원은 수직 장방향으로 긴 형태의 공간 중앙에 가벽으로 구분하여 놀이공간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용되고 있었고, 어떠한 장치물이 없이 넓게 트인 운동공간에서는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의 동적인 놀이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공원의 가로에 면하여 길게 휴식공간이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희망공원은 공원의 형태는 남촌공원과 같지만 놀이공간과 운동공간이 서로 연결되면서 구분 없이 조성되어 있다.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산재되어 배치되어 있었다. 체육시설이 설치된 운동공간에는 점적으로 수목이 식재<sup>20)</sup>되어 있어 공놀이, 배드민턴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한 공간에서 모든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내부에 조성된 공간들 서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다른 이용행위에 직접적으로 방해를 주거나 받지 않아 공원의 공간구성 측면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요구사항

공원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구성되어 있는 공원에서는 다양한 연령, 활동이 집중으로 이용하여 매우 위

20) “여기서 축구하면 자꾸 저 나무를 맞고 배드민턴을 해도 공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안 좋아요.”-희망공원, 12세 남자아이-

표 18. 공원별 공간 이용

| 다운공원 | 남촌공원 |
|------|------|
|      |      |
|      |      |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연령별 공원의 공간과 시설

연령에 따라 놀이공간이 구분하여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모든 공원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들이 놀이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놀이공간의 주 사용자의 연령을 3~7세(미취학아동인 유아)와 8~13세(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연령별 놀이행위와 장소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아들의 놀이공간과 행위의 특징은 자신만의 놀이공간을 형성하며 또래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모래놀이, 소꿉놀이 등과 같은 집단적이면서도 정적인 놀이였다. 대조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공원의 전체 공간을 자신의 활동영역으로 인식하고, 또래친구들과 그룹지어 공원을 이용하는 사회적·집단적 활동과 뛰어놀기, 자전거, 공놀이 등의 동적인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용자 연령에 따라 놀이 행위와 장소의 특성에 차이를 보이므로 연령별 이용자들의 신체조건과 놀이의

표 19. 연령별 이용 특성

|       | 유아                             | 초등학생                            |
|-------|--------------------------------|---------------------------------|
| 사용 장소 | - 놀이기구 아래 공간<br>- 공원 모서리, 가장자리 | - 전체 공원 공간<br>- 통로, 인접가로공간      |
| 주요 행위 | - 모여 앉아 모래놀이<br>- 소꿉놀이하기       | - 놀이기구 타며 놀기<br>- 자전거, 인라인, 공놀이 |
| 사진    |                                |                                 |

21) “초등학생들은 뛰어다니면서 노니깐 그 시간은 피해서 와요. 유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서요.” -남촌공원, 주부-

행태적·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활동별 공원의 공간과 시설

공원 내 일어나는 활동을 관찰한 결과, 모든 공원에서 일어나는 자전거타기, 인라인타기, 걷기, 뛰기 등 활동 등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공간이 계획되지 않았다. 이 활동은 공원의 통로부부이나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선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어나도록 공원의 가장자리공간을 활용하여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12. 사례 공원에서 나타나는 선적 놀이/운동 활동

(3) 바닥 재료에 따른 만족도와 선호도

사례 공원의 바닥포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원 바닥이 고무와 블록으로 조성된 공원은 대체로 만족도는 높고 모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고무바닥은 페타이어를 활용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이용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점, 다양한 놀이행위가 가능한 점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모래바닥은 놀이 활동의 흥미와 친숙한 공간형성이라는 점에서는 선호하지만 관리되지 않아 비위생적이고 위험요소를 가져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공원의 바닥 조성계획 시 연령별 이용행태와 관련하여 공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연령별 놀이행위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바닥재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V. 도시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 계획방향

본 연구는 현재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의 관점에 따라 대표적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어린이공원의 활용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측면으로 도시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의 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규모와 배치측면이다. 주거지와 공원 총면적이 동

일하고 각 공원의 규모와 배치방법에 차이를 지니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공원은 주거지 내 모든 거주자들의 이용 편리하고 가능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 이용자층과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접근이 쉽도록 하고 거주자들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주변과의 관계적 측면이다. 이는 공원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로 주거지 내 주 보행로와의 연계를 통해 거주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주 이용자인 어린이이 이용시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공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원공간구성과 활용 측면이다. 공원 공간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선호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서로의 활동이 방해 받지 않도록 공간 구성이 필요하며, 연령별·활동별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이용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총량적인 면적확보 위주와 내부공간 계획이라는 도시적, 조경적 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주거지와 관계성을 설정하고, 어린이공원의 활용 특성과 거주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주거지내 어린이공원의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1961.
2. 민병호, 『라퓌타를 찾아서 아동을 위한 주거단지계획』, 세진사, 2001.
3. 김동진,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의 질 결정요소 규명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 박종호, “도시주거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및 건축적 특성과 계획지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5. 이형우, “이용후 평가를 통한 공원 조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국토개발연구원, “주거환경의질적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998.
7. 시정개발연구원, “도시 소공원 확보 및 조성방안”, 1996.

(接受: 2005. 10. 7)

